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 목 : 왜 우리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야 하는가? 성경: 마태복음 5장 21-26절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만 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5:21-26)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율법에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도 살인은 큰 죄이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또는 형법상 살인하지 아니하면 살인죄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완성은 아니다. 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일까? (살생과 살인은 다르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인은 큰 죄가 된다.

그래서 단순히 21절에 묶여 있는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된다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거나,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또 반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결코 죄를 범하지 않게 된다거나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다거나, 결코 마귀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니다. 섰다가 넘어진 자들도 있고, 배반하는 자들도 있고, 유혹에 넘어간 자들도 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는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진리라는 뜻이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배반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실이라는 뜻이고, 어떠한 유혹이 오더라도 스스로가 걱정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도우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구원이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는 말은 교리, 즉 원칙이며, 실제적인 구원은 원리적이고 기계적인 구원은 아니라는 뜻. (교리가 틀렸다는 뜻이 아님. 이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삼차원, 사차원적으로 이해해야 함.)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은, (3가지)

1. 제사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뜻. (자동차가 나왔으니 더 이상 마차는 사용하지 않는다.-마차에서 해방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음.)

2. 장로들의 유전과 같이 불필요하고 의미없는 관습이나 악습, 미

신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실로 마귀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3. 율법주의에서 벗어났다는 것. 율법주의란 결국 자기 스스로의 생각이 가장 의롭다고 여기며 자기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것을 가장 옳게 여기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권력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박해하거나 방해하거나 심지어 죽이기 까지 서슴치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1,2번은 어렵지 않으나, 3번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구원파의 주장 이들은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것들이 교리적인 구원론의 논리적 오류)

3번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에서의 해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는 철학적인 이해이다. 예수님은 다르게 보셨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시하시는 율법에서의 해방은

1. 율법의 완성이다. (스스로가 제사법을 완전히 완성하셨다.)

2.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다. 왜냐면 고등학교에 갔으니까.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였다.)

-율법은 초등학교, 성령충만은 고등학교다. 율법을 초월한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므로 율법에서는 해방되었다는 뜻.

-제사법이 아닌 다른 율법들은 삶의 레벨과 경건의 레벨을 높임으로 가능해 지는 것이며, 삶과 경건의 레벨을 높이는 것은 오직 성령충만으로 가능해 지는 것들이다.

3. 죄와 마귀를 이기는 것이다. (다분히 인격적인 의미를 포함함.)

-결국은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냐의 문제라는 뜻.

-해석이란, 결국 누구의 편에서 해석하느냐의 문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렇다. 어떤 사건을 누가 해석하고 어떤 말로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말이 달라진다.

-율법도 마찬가지. 마귀도 하나님 가장 측근에 있었던 자라, 그는 거룩함과 영광과 지혜를 도둑질하는 자다. 거기에 거짓말을 더하고, 쇼맨십을 더하여,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유혹해 낼 수 있을지를 잘 알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아무리 마귀라도 하나님편에 서는 자를 당하지 못한다. 거짓이 진실을 이겨내지 못하고, 미움이 사랑을 이겨내지 못하고, 교만이 겸손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배신이 충성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와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는 자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에서의 해방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놀리는 자는 인격적 살인행위를 저지르는 것으로 지옥에 가게 된다.

-성령의 사람은 이런 악행에 가담하지 않는다.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배를 거룩하게 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괴롭힌 일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다. 하나님을 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겠는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혹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봐 먼저 회개하고 예배하는 것이다.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물론 화목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가 충분히 화목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그가 원치 않는다면 하는 수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다.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고발까지 당하는 것은 상당한 죄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배상해 주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5:21-26)

-일단 재판까지 갔다면, 하나님은 결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한다. 그것이 은혜다. 혹시 재판 이전에 합의하면 그것이 은혜이다. 재판이 벌어졌다면, 죄값을 치루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의로운 자여야 하며, 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자이며, 사소한 것이라도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되는 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래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를 더 깊이 기도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 아멘.

##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8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9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다

10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둬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11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13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딤후4:1-16)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귀신과 마귀의 유혹을 따라 가리라.

-귀신은 항상 명예, 부귀, 영광, 칭찬받는 자리 등을 이용한다.

-이런 세속적인 것들을 정당하게 얻지 못하고 귀신의 가르침, 거짓, 모략, 시기 질투로 행함은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

2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 경건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이용해서 어떤 자리나, 이권이나, 자량을 얻어낼 것이다.

-우리나라도 학벌위주, 학위위조, 향응을 통한 이익 등이 얼마나 많은가?

-거룩한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다.

3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새로운 율법주의의 등장을 예고함. -카톨릭 교회를 의미함.



-음식 금지;안식교.

6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이 기초적 영적 분별. 여기에서 떠나거나, 시험에 들면(자기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실망하면) 그는 힘을 잃게 된다. 좋은 일꾼이 되지 못한다.

-말씀을 따라 잘 양육을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을 유지하게 된다.

7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허탄한 신화. 전설의 고향과 같은 내용들, 영웅에 관한 이야기들,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버리라.(한국형 드라마의 이상한 현상. 근친상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자식,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된 부모와 자식, 기억상실, 기억 다시 찾음, 나쁜 시어머니, 회장님, 잘난 며느리)

-연단하라. 훈련하라. 말씀 훈련. 생활 훈련. 언어 훈련, 음식 훈련, 건강을 위한 훈련. 등. 직업훈련.

14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예언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라.